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8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80장 (새찬송가 361장)

“누가복음 11장 5절~8절 강해 설교”

여행 중에 더욱이 밤중에 불꽃 찾아간 사람이 나 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나 둘 다 무례하고 무리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절친한 벗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상대가 벗이기 때문에 막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관한 비유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벗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듯이 하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지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사가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홉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온전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갔고 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창 12:4)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패기와 모험정신이 있어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결정할 만큼 노인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도 노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다고 언급한 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갖가지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으로 가는 길을 압니까? 길 안내자가 있습니까? 이삿짐을 가지고 짐승 때를 이끌고 막연하게 멀리 이주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보았습니까? 문명이 발전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좇아 나아갔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확실한 행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행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좇아 인생길을 걷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족과 이웃 사람들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설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대답을 듣고 “정말 딱하다. 무모하기 짝이 없다. 후회막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서슴없이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났습니다.

(2)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절정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실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애지중지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도, 밭에 나가 일할 때에도 이삭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달려가 이삭부터 품에 안았습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쁨이며, 보람이며, 자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미루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종입니다.

① 아내와 의논치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②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충격과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고 떨쳐버렸습니다.

③ 핑계거리를 없앴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현장에서 장작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칼을 빼들고 왔으면 짐으로 되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옛세 후에야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현장에서 실행을 지연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④ 사람의 비난 공격을 각오하였습니다. ⑤ 초지일관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묵묵히 여행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인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사람의 결심과 의지는 연약하여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노숙하면서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이삭이 끈하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 몇 번이나 마음의 결심이 흔들리고 의지가 산산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념에 젖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서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개역개정 판에는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주격을 포함시켰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준비해온 나무를 펼쳐 놓은 다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숨을 쉬면서 느릿느릿 일을 진행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중단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얹은 후 지체 없이 칼을 든 장면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런 속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고 강한 소리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하여 일단 아브라함의 진행을 멈추게 한 다음 속도를 늦추어 “내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솟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습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솟장을 가져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솟장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풀어 번제단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이삭을 죽인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 11:17-19).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지시한 것과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얹은 것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백 퍼센트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능하시므로 잿더미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놀라운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고 보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에 영으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영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3)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절친한 벗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듯이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벗으로 여긴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친밀하고 다정하게 여기심을 나타내 시려고 벗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벗이라고 불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4,15)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하여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된 용어는 성경 전체의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영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고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19-22)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함을 얻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매우 친밀하고 다정하게 여기시며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밤중에 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둘째, 이 비유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비록 벗 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 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돌이 주리라.” 하였습니다. ‘강청’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강청함을 의미합니다. 그가 강청한 기본적인 근거는 벗이라는 관계이지만 그 위에 부가되는 근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① 그는 도움을 요청받는 친구에게 도와줄 충분한 빵이 있음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빵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결코 강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구하는 성도를 위하여 줄 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기록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퍽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시 81:10-12)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하였습니다.

② 그가 벗이 일어나 주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강청한 또 하나의 근거는 비록 자신이 지나치게 절제를 행하여도 이 일로 인하여 절교 당하지는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벗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꾸어 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하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높여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꾸어 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하였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주려고 하니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꾸어 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데 강청하니 이러다간 잠도 못 잘 뿐 아니라 문까지 부서질 지경이니 일어나서 주어야겠다.”하고 일어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리만 꾸어 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좀 야박하긴 하지만 저녁 한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내버려 두면 내일 새벽에 달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자 “오, 이 친구 정말 초저녁 잠이 상당히 깊어 들었나 보군. 문을 여간 두드려서는 듣지 못할 것 같으니 더 세게 두들겨야 겠 것 같은데.”라고 중얼거리더니 문을 더 세게 두들기며 목소리를 더욱 높여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꾸어 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데 강청하니 이러다간 잠도 못 잘 뿐 아니라 문까지 부서질 지경이니 일어나서 주어야겠다.”하고 일어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엄마, 쿠키 먹고 싶어요. 쿠키 만들어 주세요.”하고 졸랐습니다. “너, 아침 먹은 지가 언젠데 쿠키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아. 엄마가 바쁘네 성가시게 하지 말고 지리 비켜. 너서 나가서 형하고 놀아.” 아이가 시무룩하게 되어 문 밖에 나가니 형이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시무룩하니?” “엄마에게 쿠키 만들어 달랬다가 꾸지람만 들었던 말 이야.” “그래, 기다려봐.” 조금 후에 형이 쿠키를 들고 나와서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형, 이 쿠키 엄마가 만들어 준거야?” “그래”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형이 어계를 으쓱하고 대답하기를 “쿠키 만들어 줘요!”라고 고함쳤더니 안 된다 하기에 막 발버둥치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 녀석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울지 말고 기다려.’하더니 만들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떼쓰고 강청하려면 사실 용기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듯,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 기도하면 곧장 응답이 되는 경우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물을 것 없습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답을 알려고 애쓰는 시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에도 능해야겠지만 실천에 능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강청하는 용기와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쿠키 만들어 달라고 소리 질렀으면 “이 아이가 누구냐 정신이 이상한 아이가 아닌가?”라고 쫓아낼 것입니다. 쿠키를 손에 든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강청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쿠키를 만들 밀가루와 기름이 있으며 쿠키를 맛있게 구워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애가 자기 어머니에게 귀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가서 쿠키 만들어 달라고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무엇이라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담대함을 얻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강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요구한 대로 줄 것이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유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응답 받는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